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변형된 숲의 모습으로 표현한 심상의 시각화
- 본인 작품을 중심으로 -

The Visualization of Images of a Deformed Forest
- Focusing on the Researcher's Works -

지도교수 김 섭

이 논문을 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22년 6월

울산대학교 대학원
미술학과
신은지

신은지의 석사 학위논문으로 인준함.

심 사 위 원

심사위원장 김 섭 (인)

심사위원장 김세원 (인)

심사위원장 하 원 (인)

울산대학교 대학원 미술학과

2022년 6월

국 문 요 약

변형된 숲의 모습으로 표현한 심상의 시각화 - 본인 작품을 중심으로 -

본 논문에서는 본인의 개인적인 추억과 기억의 심상을 바탕으로 변형 또는 시각화하는 표현 방법과 획일화된 현대사회의 같은 방식에서 벗어나 추상적인 채색방법을 연구하고자 한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안정적인 삶을 위해 타인에게 자신을 맞추고 기준을 만들어가며 개성을 잃어가고 획일적이게 살아가는 모습이다. 이로써 결국 사람들은 자신보다 타인의 시선에 의존하며 공허함을 느끼며 상실감만 남게 될 뿐이다.

본인은 이러한 현대사회 속에서 스스로의 자율성을 찾으려 노력하는 것 자체로도 의미가 깊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러한 자신의 이야기를 담은 추억, 기억, 심상을 통하여 작품으로 표현하고자 한다.

본인은 유년시절부터 심상에 각인 되어진 추억과 기억, 현재의 삶에 대해 되돌아보고 그것들을 변형시켜 상상하고 표현하며 자신의 작품을 이야기한다.

각인되어 있는 추억과 기억, 심상의 모든 이미지들을 모아서 단순화 또는 추상화의 표현 방법으로 형태들을 가시화 한다. 드로잉을 먼저하고 다시 변형된 숲으로 커튼을 치듯 그림을 그려 나간다. 이렇게 숲으로 변형되어 조합하며 나타낸다. 획일화된 현대인의 모습에 회의감을 느끼며 똑같은 삶과 작품에서 벗어나려하는 특별한 자기만의 에피소드로 탄생시키며 나만의 정체성을 찾고, 나만의 작품을 만들고, 여러 형태로 표현하고자 한다.

The Visualization of Images of a Deformed Forest

– Focusing on the Researcher's Works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method of visual expression of deformation based on the images of personal memories of the researcher and the theme of the people of modern times who are becoming standardized.

For the sake of stability in their lives, the people of modern times have been adjusting themselves to match others and developed the criteria for which they have been standardized and losing their characters. This will only lead the people to emptiness and a sense of loss, as they depend more on the gazes of others than themselves. The researcher believes that the efforts to restore one's autonomy in this modern society are meaningful in themselves. Moreover, it is the researcher's intent to express the memories and images based on the researcher's own story.

The researcher looks back on the memories and images from the past that are engraved in mind and the life as it is now to deform them, imagine them, and express them to tell the researcher's own story. The researcher gathered up all the images and memories from the past and visualized them in many ways of expressions of simplification and abstraction. First, the drawing is done, followed by the painting process of the forest, which resembles the closing of a curtain. It is thus deformed and regrouped into a forest. Disillusioned by the standardized modern life, the researcher created unit artworks in an effort to escape from the undistinguishable life and arts by means of creating one's unique episodes. In this process, the researcher intends to discover one's own identity, create one's own artworks, and make expressions of various forms.

차 례

제1장 서론.....	1
1.1. 연구의 목적과 내용.....	1
1.2. 연구의 범위와 방법.....	2
제2장 표현 방법.....	2
2.1. 표현의 방법.....	2
2.1.1. 심상의 시각화.....	2
2.1.2. 채색과 재료.....	3
제3장 결론.....	4
작품 목록.....	5
연구 작품.....	6
참고 자료.....	11
참고 문헌.....	13
Abstract	

제1장 서론

1.1. 연구의 목적과 내용

“왜 같은 그림을 그릴까?”, “타인의 시선과 기준에 맞추고 살아야 성공한 삶이고 안정적인 삶인가?”, “나의 모습은 무엇이며 나아말로 획일화된 삶이 아닐까?”, “나는 어떤 추억과 어떤 기억을 마음에 담고 있고, 생각에 이루어져 있으며, 어떤 사람인가?” “왜 모두 같은 방법으로 채색할까?” 이와 같은 질문을 바탕으로 본 작품 연구는 시작되었다.

본인은 거대한 현대 사회의 구조와 타인들의 시선 의식에 사로잡힌 기준들에 비교하며 획일화 되어가고, 개성을 잃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들었다. 유명한 작품이 나오면 그 작품을 모방하여 채색하고 표현조차 같아져야 만족하는 사람이 많은 것인지, 자신의 이야기를 담은 표현과 색다른 채색작품은 없는 것인지, 자신에 대해 돌아보고 틀에 박힌 현대인의 작품 표현방법에 끊임없이 고민해보며 연구한다. 그들의 내면에 ‘나’ 자신의 기억과 심상을 찾아서 나만의 심상의 숲을 변화시켜 재구성하고자 한다.

본인은 유년시절부터 각인되어 있는 추억, 기억, 삶에서 나타난 심상 속에서 이미지를 찾고 그것들을 시각화하는 탐구적 표현을 하고자 한다. 누구에게나 유년시절부터 지금까지 다양한 추억과 기억이 머릿속, 심상으로 남아 있다. 내게 중요했던 물건, 내게 중요했던 것들, 내게 중요했던 등장인물, 내게 중요했던 배경들, 그때 느껴지는 감정의 드로잉에 초점을 맞추어 사실적 묘사 보다는 형상을 단순하고 변형되게 만들어 다양하게 추상적이게 표현하여 본다. 개인적으로 감추고 싶거나 드러내고 싶은 것들은 다르기에 드로잉으로 그리고 그것을 숲을 커튼 삼아 덮기도 하고 보여주기도 하며 표현한다. 작업의 기초가 되는 감정은 유년시절 경험으로부터 시작된다. 경험은 추억이 되고 기억이 되고 심상에 강인하게 때로는 희미하게 이미지로 남게 된다.

본인은 본인의 주관적인 추억과 기억을 토대로 심상 속에 잠재된 물건과 등장인물과 배경, 그리고 그때 느꼈던 감정을 표현하여 시각화시킨다. 추억과 기억에 초점을 맞추어 특별한 감정의 숲을 그리고 이야기로 재구성함으로써 작품 속 단순화된 표현과 추상적인 표현을 분석하고 작품이 가지는 의미를 파악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범위와 방법

본인은 추억과 기억과 심상을 단순화하여 드로잉하고, 추상적이게 표현하여 새롭게 구성하고 추상적인 색감으로 마무리하고 표현하는 연구를 한다. 1차적으로 단순화 및 추상적인 드로잉을 하고 2차, 3차, 4차 드로잉을 추가하여 겹쳐지고 다시 재해석 되어지는 추상적인 형태에 감정의 색을 입히며 점차 숲을 만들고 표현하는 연구를 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한다.

첫째, 본인 작품에서 표현된 추상적인 숲을 형상화 시키고 재구성하는 표현방법에 대해 분석하고, 점차 이야기를 담은 숲이 완성되어가는 방법과, 작품의 중심적인 드로잉과 표현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둘째, 본인 작품에서 중요하게 표현된 추상적인 색의 채색과 재료의 사용되어진 방법과 표현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제2장 표현방법

2.1. 표현방법

2.1.1. 심상의 시각화

사람은 유년시절부터 살아가면서 삶의 방식이 모두 다르고 중요시 여기는 가치도 다르다. 여러 가지 추억과 기억의 삶속에서 크거나 혹은 작거나 다양한 영향을 끼치고 그것들은 추억이 되고 기억으로 심상으로 각인이 된다.

본인은 심상의 추억과 기억을 통해 가장 생각나는 경험과 상황을 꺼내서 그때 그 순간 느꼈던 생각과 감정들을 단순화하여 그리는 과정을 여러 차례 반복한다. 겹쳐지고 변형되면서 앞에 있던 물체와 뒤에 있던 물체가 합쳐지며 전혀 알아 볼 수 없게 또 다른 형태의 선과 면이 나오게 된다. 표현방법은 먼저 물건을 그린다. 물건의 형태를 단순화하며 여러 차례 반복하여 최종적인 이미지로 단순해지면 여러 물건들을 나열하듯 그린다. 나만의 물건이다. 나와 나의 인생에서 떠올릴 수 있는 물건, 두 번째로 물건을 가리듯 숲의 식물들을 물건이미지 그림 위에 그리며 물건을 덮을 부분은 조금씩 덮는다. 가리고 싶은 부분은 더 강하게 덮어도 되고 가볍게 가리고 싶은 부분은 식물을 적당히 그린다. 숲이라는 것은 본인에게 무엇인가? 유년시절부터 언제나 놀이터이자 삶이자 휴식터이다. 본인이 살고 있는 집 뒤에 또 다른 나의 집이었기에 엄마 같은 존재이자 세상 전부인 형상이다. 자연스레 모든 나만의 심상 배경이 되었다. 삶에

경험이나 추억이나 생활들이 다양하게 심상으로 저장되거나 느낀 주제들로 시각적인 이미지를 발생해낸다. 그 시절 필요했던 도구나 물건, 등장인물, 배경을 다시 재조합하고 기억을 회상하여 도출된 심상을 통해 드로잉 한다. 이 과정을 통하여 계속하여 구체적인 사물이나 배경, 등장인물들을 변형하는 과정을 반복하게 된다. 그렇게 차츰 물건과 식물이 캔버스나 판넬에 드로잉으로 얹어지고 반복되며 물건이나 인물의 그림들은 숲의 형태 속에 보일 듯 말 듯 자취를 감추기도 하고 드러나기도 하며 드로잉은 완성된다. 1차 드로잉으로 인물이나 물건들을 먼저 그리고 2차 드로잉으로 배경, 마지막 드로잉으로 숲의 형태를 추상적으로 그리면서 반복한다. 여러 물건이나 인물이나 식물들을 단순화하여 선을 겹쳐지고 또 겹쳐지게 그려 넣으면서 추상적인 나만의 숲 드로잉이 완성되어 간다. 가까이서 보면 물체, 멀리서 보면 숲 형태의 추상화가 된다.

2.1.2. 채색과 재료

본인은 숲을 변형시키고 반복적으로 드로잉 하고 보편적이지 않게 채색함으로써 일차적으로 획일화 되는 규율과 채색방법의 작품에서 해방하고 획일화된 현대사회와 현실과 방법에서 분출하고자 한다. 본인의 주관적인 표현은 숲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숲의 요소들도 형태를 변형시켜 표출하게 한다.

본인은 판넬과 캔버스에 과슈와 오일파스텔로 어울리지 않을 것 같으면서도 서로 다르지만 함께 섞일 수 있는 재료들을 혼합하여 표현한다.

먼저 오일파스텔을 이용하여 드로잉을 따라 그린다. 그 후 느꼈던 심상의 색으로 오일파스텔을 이용하여 물건부터 채색한다. 물건이나 인물을 먼저 채색한 다음, 식물을 채색한다. 여기서 전부 다 채색하는 것이 아니라 부분부터 들어간다. 오일파스텔로 채색하는 부분은 그림의 70% 라는 비중을 차지한다. 그 후 나머지 30%는 과슈로 채색한다. 오일파스텔 위에 과슈는 절대 올라갈 수 없고 지나가는 성질을 가졌기에 과슈로 오일파스텔 부분을 침범하지 않으면서 나머지 부분을 마무리 채색 할 수 있다. 오일파스텔이 주는 답답함과 무거운 느낌이 있다면 과슈가 주는 맑은 부분과 시원한 부분이 있기에 이 둘의 혼합으로 심상의 숲을 나타내기엔 적합하다고 연구하였다. 반짝임이 들어가 있는 오일파스텔의 경우 조명이 비춰지면 또 다른 느낌을 준다.

성질이 전혀 다른 동서양의 물감들이 합쳐지고 더해지면서 조명이 비춰졌을 때 생기는 반짝거림과 질감을 통해 더욱더 다양함이 살아나며, 작품과 관객들 사이에 다양한 각도에 따라 느껴지는 질감이 다르게 형성되어 또 다른 형태의 이미지로 느낄 수 있게 나타나게 된다. 지인들과 관객의 이야기들을 듣고 그에 맞는 작품을 제작하여 단 하나뿐인 '나의 이야기'가 들어 있는 숲으로 탄생한다. 획일화된 작품이 아닌 개성 있

는 작품으로 만드는 장소로 느낄 것 이며, ‘나’를 다시 한 번 되돌아보고 나의 삶을 되짚어보는 경험을 할 수 있다.

제3장 결론

본 논문에서는 바쁘게 쳇바퀴처럼 돌아가는 현대사회를 살아가면서 현대 사람들은 사실 주체성을 찾아가기란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느껴서, 현대미술작품 또한 비슷하고 보편적인 채색방법과 비슷한 방식의 그림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나 자신보다 타인의 시선과 기준에 눈치를 보며 나도 모르게 획일화 되어 가기 싫어서, 나만의 작품과 나만의 이야기가 담긴 숲으로 개성 있고 주체적인 작품을 찾고자하였다.

이렇게 ‘나’로 살아가면서 비슷하게 획일화되어 개성 없이 살거나 타인의 시선에 초점되어 비슷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불안감으로 사는 것은 안타까운 현실이다. 본인은 이러한 현실에 사람들이 자신을 되돌아보고 자신 스스로의 주체성과 개성을 찾고 표현하고 표출하며 행복을 실현하고자 하였다. 나에 대해서 되돌아보고 생각해보는 시간과 드로잉 및 채색표현방법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단순화 되어지는 시각화, 대상의 구체적인 묘사가 아니라 주관에 의해 단순화 또는 추상화하는 표현과정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그 결과 보편적이고 비슷한 작품이 아니고 나만의 물건과 인생이 들어간 작품에 대하여 그리고 자신만의 표현에 대하여 더 심층적으로 성찰할 수 있었다. 단순화의 표현의 겹쳐짐과 추상적인 채색으로 나만의 이야기와 삶이 담겨진 숲의 형태로 작품을 완성시켜가고 개성 있는 자율성을 이야기한다.

본인의 작품을 통해 관객들에게 자신의 마음 속 깊이 내재되어 있는 추억, 기억, 심상을 재구성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며, 잊고 지낼 수도 있고, 잃어버렸을 수도 있는 현대사회에 자신의 정체성과 주체성을 찾아서 되돌아보며 주체적인 ‘나의 삶’과 내면이 되기를 기대한다.

작 품 목 록

- <작품1> Green Hand 2019 Mixed media on pannel 127*110cm
- <작품2> Never Never Never 2019 Mixed media on pannel 127*110cm
- <작품3> Sad Days 2019 Mixed media on pannel 80*97cm
- <작품4> Gsateful Parents 2020 Mixed media on canvas 75*107cm
- <작품5> A Happy Night 2020 Mixed media on canvas 127*110cm
- <작품6> 흐릿한 오후의 나날들 2021 Mixed media on canvas 330*157cm
- <작품7> 맑은 뇌와 마음 2021 Mixed media on canvas 167*147cm
- <작품8> Band Forest 2021 Mixed media on canvas 40*40cm
- <작품9> Rainbow Forest 2021 Mixed media on canvas 40*40cm
- <작품10> Red Forest 2021 Mixed media on canvas 50*70cm
- <작품11> 분노와 다스림 2021 Mixed media on canvas 50*70cm
- <작품12> 그렇게 다스리다 2021 Mixed media on canvas 147*74cm

연구 작품



<작품1> Green Hand 2019 Mixed media on pannel 127*110cm



<작품2> Never Never Never 2019 Mixed media on pannel 127*110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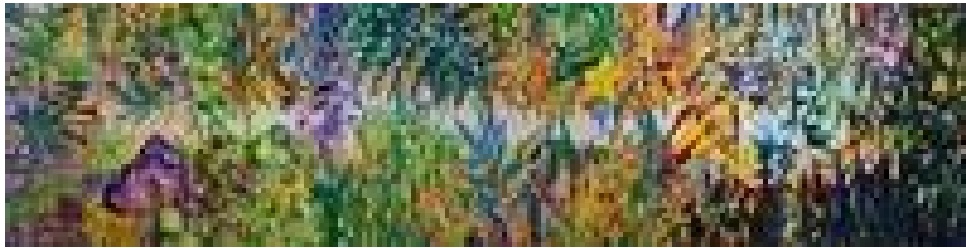
<작품3> Sad Days 2019 Mixed media on pannel 80*97cm



<작품4> Gstateful Parents 2020 Mixed media on canvas 75*107cm



<작품5> A Happy Night 2020 Mixed media on canvas 127*110cm



<작품6> 흐릿한 오후의 나날들 2021 Mixed media on canvas 330*127cm



<작품7> 맑은 뇌와 마음 2021 Mixed media on canvas 167*147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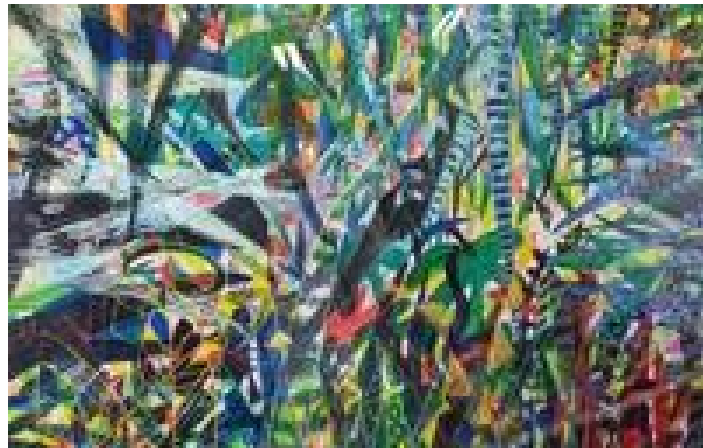
<작품8> Band Forest 2021 Mixed media on canvas 40*40cm

<작품9> Rainbow Forest 2021 Mixed media on canvas 40*40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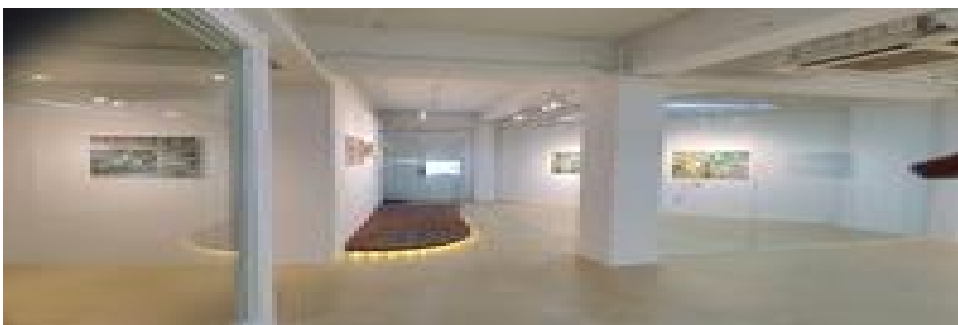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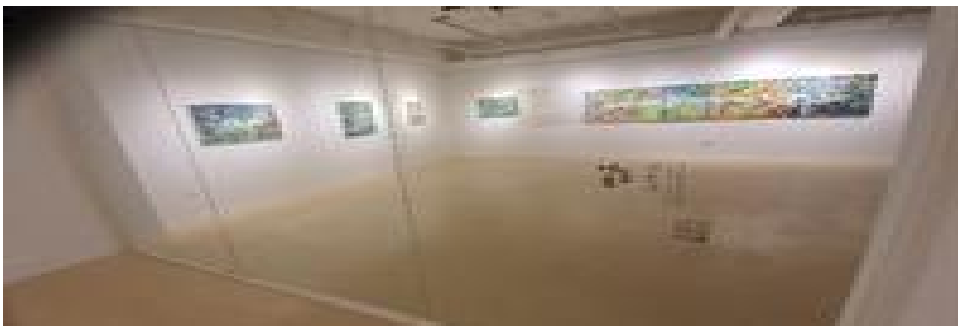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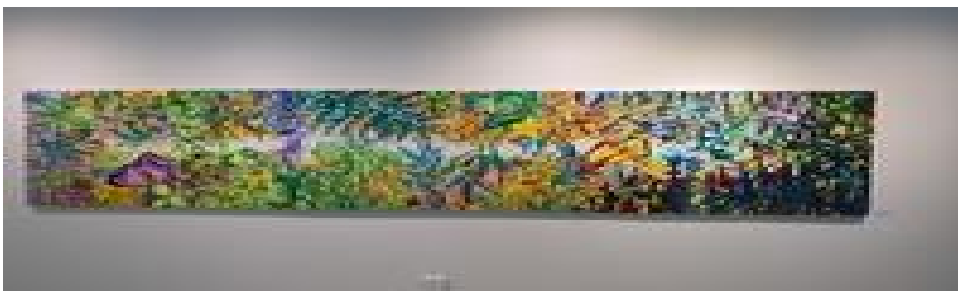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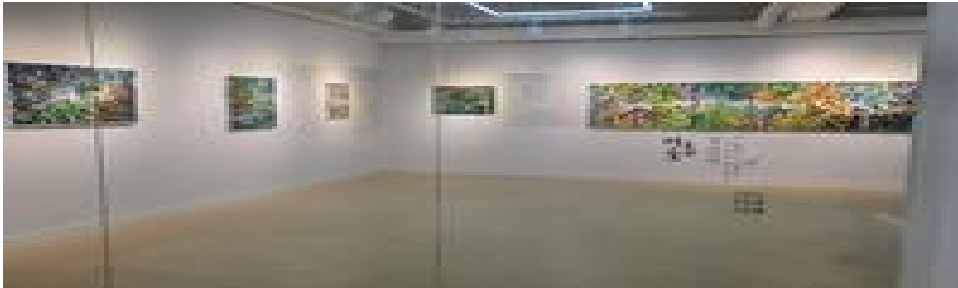
<작품10> Red Forest 2021 Mixed media on canvas 50*70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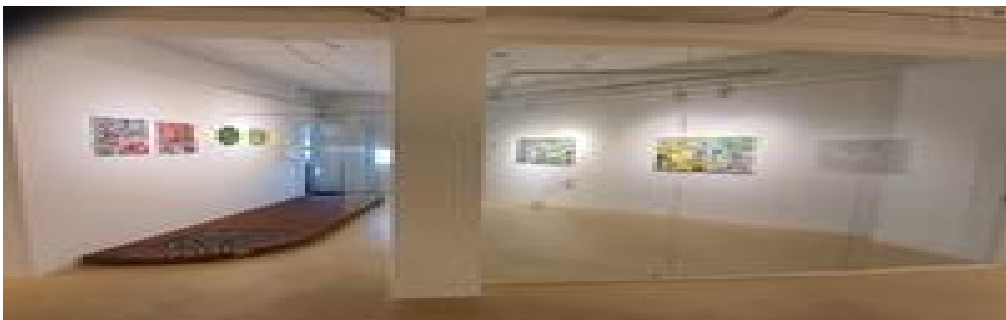
<작품11> 분노와 다스림 2021 Mixed media on canvas 50*70cm



<작품12> 그렇게 다스리다 2021 Mixed media on canvas 147*74cm

<참고자료> 울산대학교 일반대학원 미술학과 석사학위 청구전 전경





참 고 문 헌

< 단행본 >

- 김현경, 『사람, 장소, 환대』, 문학과지성사, 2015
- 권석만, 『현대이상심리학』, 학지사, 2013
- 귀스타브르봉, 『군중심리』, 현대지성, 2021
- 앤서니 기드슨, 필립서튼, 『현대사회학』, 을유문화사, 2018

< 논문 >

- 강현신, 2021, 『변형된 형태로 표현한 일상 속 기억의 시각화: 본인의 작품을 중심으로』, 울산대학교 일반대학원, 국내석사.
- 임은경, 2017, 『추상화에 질문 던지기를 통한 미술과 표현력 신장 연구』,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국내석사.
- 정민아, 2002, 『다양한 추상화 수준으로 표현된 데이터를 위한 결정 트리』, 전남대학교 대학원, 국내박사.
- 정수진, 2020, 『자연풍경의 단순화 표현 연구: 연구자의 작품을 중심으로』, 대진대학교 대학원, 국내석사.

< 전자문헌 >

- 박진관, 2021.2.22, “현대미술을 이해하며”
<https://www.yeongnam.com/web/view.php?key=20210218010002656>
- 오현주(기자), 2020.10.22, “‘단순화’의 힘...버리면 얻는다”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302166625896840&mediaCodeNo=257&OutLnkChk=Y>
- 정윤아, 2022.4.22., “사회·정치이슈던지는 ‘사회적추상화’개척”
<https://www.mk.co.kr/economy/view/2022/337884>